



# 소비자 **광장**

## 사용처 · 가격 등 상품권 사용 혼란스러워

책을 사려고 동네 서점에 갔다. 8천5백원짜리 책 한권을 사고 5천원권 도서 상품권 2장을 내미니 한 장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천원 한 장당 1천원만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1천5백원을 거슬러 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도서 상품권을 받으면 5백원 정도를 손해 본다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내가 1만원권 도서 상품권을 내밀었다면 주인은 아마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 잔돈을 거슬러 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5천원권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두 말하지 않고 나왔다. 대형 서점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대형 서점에서는 이런 불편이 없다. 다양한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이런 일 때문에 주인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대형 서점을 이용하는 한 이유기도 하다.

작은 서점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안 받는 곳도 많다. 상품권이 아직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인지는 몰라도 상품권이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상품권을 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상품권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구두 상품권의 경우도 그렇다. 구두 상품권에 찍힌 가격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구두 상품권이든, 문화 상품권이든 모든 상품권이 그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지고 가격도 정리되어 사용하는 데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해란(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 한밤중 고장난 가스 경보기, 응급 조치 가르쳐 주지않아

한밤중에 “가스가 켜집니다”라는 여자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아파트마다 부착된 비디오폰의 비상 경보 기능 중 하나인 가스 누출 경보였다. 다급한 마음에 이리 저리 둘러 보았는데 아무리 점검해보고 가스 밸브에 이상이 없고 가스 냄새도 나지 않았다.

경보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경보 해제 버튼을 눌러도 5분이 멀다하고 “가스가 켜집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말 소음 공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해제 버튼을 테이프롤 붙이고 스피커를 수건으로 덮어봐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경비실에 전화를 했다.

경비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날이 밝은 후 장비 납품 회사에 연락해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이런 불만을 해결해 줄만한 실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정비 회사에 전화를 걸어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일 출장은 불가하니 다음날 오겠다는 성의없는 답변뿐이었고 응급 조치를 문의해도 상태를 직접 봐야 알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했다. 아이들을 앞집에 맡기고 한참을 씨름하던 끝에 결국 천정에 붙은 가스 누출 감지 센서를 떼어버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결국 우리 가족은 13시간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응급 조치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된다는 점이나 장비를 공급한 회사에서 A/S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 모두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글픈 일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다.

■서안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장애인 위한 경사로를 나무판으로 막아 놓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상당 부분이 정상인 위주로 되어 있다. 몇 년전부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건물에 장애인을 배려한 장치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차츰 완화된다고 가고 일반인들의 사고방식도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 전 목격한 장면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구은행 만촌동 지점 앞 은행 입구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인도 위까지 차량이 많이 서 있어 정상인도 피해가야 할 정도로 장애물이 많았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를 버젓이 나무판으로 막아 놓은 것이 아닌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장애

소비자 광장은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난입니다. '소비자시대'에 바라는 글이나 소비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를 담은 수필·제언·만화·만평·사진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그달치 '소비자시대'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주소·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팀 '소비자 광장'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 (02) 3460-3287(임은정)
- PC 통신 : 하이텔 ID pubsobol 천리안 ID cpbdcet
- F A X : 3461-0271



인 시설을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씩씩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 김선영(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예식장 사용료에 봉사료도 포함시켰으면

결혼식날 폐백을 드린 후였다. 한복을 갈아 입으려고 하는데 폐백 드릴 때 옆에서 도와준 아주머니가 3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절할 때 도와준 값이란단다. 그러면서 신부 입장할 때 드레스가 말리지 않게 뒤에서 도와준 아가씨들 2명과 함께 만원씩 나눠 가져야 하니 3만원이라고 했다.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따졌지만 계속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수 없어 폐백값으로 받은 돈에서 3만원을 꺼내 줬다. 기쁜 날 돈 때문에 뒤에서 안좋은 소리 듣기 싫어 그냥 주어 버렸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다. 차라리 예식장을 계약할 때 안내서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봉사료로 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을 써 놓았다면 기분 좋게 줄 것 아닌가.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어쩐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돈을 이삼만원씩 주었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피로연이 끝나고 나서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지 못하게 때를 썼다는 것이다. 신랑·신부측에서 사람

들을 데려와 음식을 전부 나르게 했는데 한 일도 없는 아주머니들이 왜 돈을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와주는 분들이 예식장 측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랑·신부측에서 별도로 돈을 받아야 한다면 서로간에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예식장이나 폐백실 사용료에 봉사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말썽도 없고 뒷탈도 없을 것 같다.

■ 권유진(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 대중 교통 운전자들의 핸드폰 사용 자제했으면

핸드폰으로 인한 각종 위해에 대해 전부터 적지 않게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연일 보도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같아 나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시동을 걸거나 운전하는 중에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많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 전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내가 타기 전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출발을 하면서도 계속 통화를 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그러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자 앞차가 정지를 했는데 내가 탄 택시는 그만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기사는 그때서야 전화를 끊고 내리더니 되레 앞차 운전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다행히 심한 접촉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일은 택시만이 아니라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도 마찬가지다. 만원버스를 운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하는데 차에 탄 승객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는 예고가 없으므로 미리 조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핸드폰 통화를 해서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보다는 승차할 때 반갑게 맞아주고 하차할 때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친절함 기사님이 더 많기를 기대한다.

■ 이은혜(광주시 광산구 장덕동)●